

# 광주동부교육청, 서석초 대상 '찾아가는 교육가족 간담회'

### 학교별 우수한 코로나19 극복 사례 찾아 공유 과정 통해 미래지향적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는 협력적 지원 확대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동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찾아가는 교육가족 간담회'를 광주서석초에서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찾아가는 교육가족 간담회'를 통해 학교별로 우수한 코로나19 극복 사례를 찾아 여러 학교와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지향적 가치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는 협력적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다.

광주서석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한 명당 노트북 한 대를 보급해 원격수업이 시작된 지난 4월

초부터 쌍방향 원격수업 기반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쌍방향 원격수업이 이뤄졌고, 출석 및 건강상태 확인하며 학생들과 함께 수업이 이뤄졌다.

온라인수업 중에도 소외 학생을 학급 교실에서 개별 지도를 실시했다.

다문화학생을 위해 찾아가는 한국어 수업 지원 및 담임교사 책임 지도를 실시하는 자등 자칫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왔다.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동체 의견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며 방과후학교, 야구부 등을 적극 운영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방과후학교 강사, 본교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의 방역과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광주서석초는 '광주서석영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1학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출석형

오전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져 '1:1 맞춤형 전화영어 프로그램'을 계획해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강사가 협력해 운영됐고, 자체 개발 교재를 활용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이바지했다.

2학기에는 센터로 직접 방문해 체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학교로 찾아가는 영어 수업'을 운영해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힘 쓰고 있다.

광주서석초 김미옥 교장은 "모든 교직원이 힘을 합쳐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기자



## 순천효산고 '중학생 요리경진대회' 개최

### 학생들에게 자신감 키우고 셰프의 꿈 심어줘

순천효산고(교장 최상경)는 17일과 18일에 걸쳐 특성화고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제6회 중학생 장작요리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키우고 셰프의 꿈을 심어주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의 비대면 환경을 고려하여 지난 10월 16일에 학교 조리실 입구에서 요리 재료 키트를 개별적으로 수령하여 방구석 온라인 요리경진대회를 개최하는 위기대응능력을 발휘하여 주목을 끌었다.

요리대회명은 "너 만의 떡볶기를 뽐내봐~"라는 다소 친근한 주제를 선정하여 비대면상황에서 요리실력을 견주어 보는 장을 마련하였다.

본선에 참가한 16개 팀은 자신의 요리 장면을 온라인으로 보여 주어 평가를 받고 자신의

요리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려 네티즌의 심사를 받아 최종 6팀이 영예의 상을 수상하였다.

먹는 재미에서 보는 재미를 곁들여 청소년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평가의 주요점으로 하고 SNS 반응점수를 고려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순천효산고는 매년 이 대회를 통하여 지역 사회의 주니어 셰프를 발굴하는데 앞장서 조리교육과정 운영 및 대외적인 성과에도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요리분야와 제과분야에서 나란히 은메달을 수상하는 저력을 발휘하여 순천효산고의 조리 및 외식 서비스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관심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 장석웅 전남교육감, 나주 학부모회 목소리 경청

### "학생의 성장 위해 교사와 적극 협력" 당부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27일 나주시 소재 전라남도청의용합교육원에서 나주 지역 교직원-학부모 다모임, 나주학부모회 네트워크 회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경청을례를 가졌다.

장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들 건강과 학습권을 지켜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각별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교직원-학부모 다모임은 각 학교 교감과 학부모회장이 모여 학교 학부모회 구성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학부모회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교직원과 학부모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장 교육감은 교직원-학부모 다모임이 끝난 뒤 학부모들을 따로 만나 학교 현장에서 전남 교육정책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는 전라남도의회 이민준 의원도 함께했다.

나주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5명 감축 정책에 만족하며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를 바라며 혁신도시와 기존 시 지역의 격차 없는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작은학교의 교육과정 내실화와 원격수업의 질 향상, 기초학력 책임제와 한 아이도 소외됨이 없는 배움과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질문과 제안을 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전남 교육의 가장 큰 자산은 교사이다. 교사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서 자발성과 창의력을 발휘할 여건이 되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다."면서 "학부모님들이 격려하고 협력하여 전남교육의 미래를 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 고흥교육청, 유·초 교(원)감 회의 개최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희) 28일 수요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10월중 함께 성장하는 유·초 교(원)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교육장과 대화의 시간, 사업 안내, 학교업무정상화 등 주제별 분임토의로 운영되었다.

변정빈 교육지원과장은 사업 안내를 통해 "학교 특색프로그램 추진, 맞춤형 진로 교육, 미소짓는 행정, 적극적인 학교 홍보, 농산어촌 유학 신청"등을 강조하여 전달 하였다.

학교업무정상화와 민주적의사소통을 주

제로 한 분임토의에 참여한 한 교감은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세대교체로 교직원 간 대면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관리자들이 직위와 마음을 내려놓고 학년 모임, 업무담당자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통을 촉진해야 한다. 그래야 교직원 모두가 교육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의견을 피력하였다.

김정희 교육장은 대화의 시간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학교의 헌신적인 노력은 감동적이었다. 교육청에서 교무행정을 대상으로 권역별 컨설팅을 추진하면서 관내 교무행정사님들이 직무에 대한



자긍심과 높은 책임감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교무행정전담팀을 이끌고 있는 교감선생님들을 격려했다. 또 "학교 내에서 한 명의 직원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기자

